

해외 영토 확장 나선 LG CNS ... 동남아에 첫 AI 데이터센터 짓는다

인도네시아서 1000억 수주
지상 11층 규모 내년 말 완공

LG CNS가 국내 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AI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클라우드 수요 폭증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자 LG CNS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해외 매출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상 11층, 수전용량 30메가와트 규모 LG CNS는 1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건설될 1000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3위인 시나르마

그룹과 세운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통해 계약 발주사인 현지 기업 'KMG'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자카르타에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지상 11층(연면적 4만6281㎡), 수전용량 30메가와트(M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게 골자다. KMG는 1단계 사업 이후 총 수전용량을 220MW까지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 CNS는 사업을 통해 1000억원 대 규모 냉각 시스템·전력·통신 등 인프라 사업을 총괄해 내년 말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LG CNS는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사업 역량과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 그룹 내 핵심 역량



현신균 LG CNS 사장(왼쪽 두 번째)과 시나르마스그룹 계열사인 에스엠플러스 빌딩 회장(왼쪽 세 번째) 등이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LG CNS 제공

을 총동원한다. 특히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연결해 복잡한 계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는 'GPU 팜(Farm)' 특화 설계와 공법을 도입해 동남아시아에서 급증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충족시킨다

는 구상이다. 또 최대 130킬로와트(kW)에 달하는 고집적 랙(Rack)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 인프라 이중화를 통해 주전원의 전력 공급이 비상 상황에 중단되더라도

예비 전력을 바탕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체계도 갖춘다.

◆각국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활' LG CNS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는 AI의 핵심 인프라를 집중하는 이유는 AI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클라우드와 연관이 깊다.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AI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4월 발표한 '2026년까지의 전력 수요 분석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약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1000TWh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는 AI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황금알'로 떠오르면서 빅테크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유치전이 격화했다. 미국이 5000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동남아는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해 미국 빅테크 기업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점찍은 곳이다. 실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에서도 구축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조사기관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는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이 올해 177억달러에서 2032년 936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주기자

국가대표 AI가 뿔 생태계, 우리가 만든다

IT기업 오픈소스 공개 붐

최근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달아 인공지능(AI) 오픈소스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기술력을 과시하고 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자사 모델을 경쟁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한 달 동안 상업적 활용까지 가능한 모델이 수십 개 등장하며 토종 AI 업계에 전례 없는 '오픈소스 공개 붐'이 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 수는 거의 20개에 달한다. 7월부터 8월 초까지 각각 SK텔레콤 6개, KT 2개,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NC AI 4개, 크래프톤 3개 등이 풀렸다.

기술력 과시하고 시장 선점

7월·8월에만 10여 개 '오픈'

SKT·KT 대규모 언어모델
네이버는 추론형 경량 모델
카카오, 멀티모달 모델 공개

게임 강자 NC·크래프톤도
인공지능 오픈소스 풀어

정부사업 대응 차원 있지만
개방형 전략이 글로벌 대세
연구용 넘어 상업용도 내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체 구축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X) 4.0과 3.1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KT는 자체 LLM '민:음'의 새로운 버전인 '민:음 2.0'을 오픈소스로 선보였다. 네이버는 추론형 경량 모델 '하이퍼클로바 X 14B 씽크', 카카오는 멀티모달 모델 '카나나-1.5-v-3b' 등을 연이어 공개했다. 게임업계에서도 NC AI가 '바르코 비전 2.0' 4종, 크래프톤이 SKT와 공동 개발한 모델 '오픈싱커' 3종을 풀었다.

이 가운데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지난달 다운로드 지표 기준 인기 있는 모델은 3만~4만회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오전 9시 기준 SKT A.X 4.0 라이트가 4만3000회, KT 민:음 2.0 베이스가 약 4만6000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14B 씽크가 3만5000회 등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오픈소스 모델이 쏟아진 데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업이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한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기업들은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고자 외부 검증

이 가능하도록 핵심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모델을 선보이며 일제히 "최고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모델" "국내 AI 생태계 저변을 넓힌다" 등 국가적 AI 역량과 연관시키면서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모델 선정 평가에 오픈소스 공개 여부는 가산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기업은 1500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와 628억원 상당의 데이터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총 15개 컨소시엄 지원으로 출발한 2차 발표 심사까지 진행돼 5개 정예팀으로 압축된 상태. 선발 기업(주관사 기준)은 네이버, LG AI연구원, SK텔레콤, NC AI, 업스테이지로 이들 기업의 오픈소스 공개 행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기업이 대부분의 모델을 상업적 라이선스를 허용한 상태로 모델을 공개하는 것도 눈에 띈다. 단순한 기술 공개에 그치지 않고, 상업서비스 적용까지 염두에 두고 모델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전략이다. 다만 공개된 모든 모델이 상업적 활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NC AI는 지난달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르코 비전 2.0'을 연구용 라이선스로만 제한했다. 이

에 대해 NC AI 관계자는 "학습 데이터가 학술용 데이터인 것이 많아서 현재는 연구용으로만 공개했지만 정부의 '독자 AI' 사업 지원으로 받은 데이터로 학습하면 향후 나올 모델은 상업용으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들이 경량화 모델을 대거 공개하는 것도 주목된다. 지난달 말에 출시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14B 씽크', 카카오의 '카나나-1.5-v-3b' 등은 모두 경량화된 모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 등에서 주로 오픈소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은 GPU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기업들이 경량 모델을 많이 오픈소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비전)에 특화된 전용 모델(VLM)들의 등장도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적으로 SKT는 지난달 29일 A.X 4.0을 기반으로 한 시각-언어모델(A.X 4.0 VL 라이트)을 공개했다. A.X 4.0 VL 라이트는 표·그래프, 제조 도면 등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해하는 기능을 갖췄다.

NC AI가 발표한 바르코 모델 4종도 시각 특화 모델이며, 이 중에는 광학문자 인식 작업에

특화된 OCR 모델(바르코 비전 1.7B OCR)이 따로 있다.

국내 기업들이 오픈소스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정부 사업 대응 차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방형 전략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도 자리해 있다.

오픈AI 등 글로벌 최고 AI 선두기업들 역시 상업적 사용 제한이 거의 없는 관대한 라이선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오픈AI는 지난 5일(현지시간) 모델 2종을 오픈웨이트로 공개했는데, 이는 완전한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오픈모델로의 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오픈AI는 딥시크, 메타, 미스트랄 AI 등 오픈소스 진영 모델들이 빠르게 상업적 성과를 내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서 공개된 AI 모델들 일부는 이미 상업용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성능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자사 AI 생태계가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선제 기자

‘AI 국가대표’ 인재영입 경쟁 불붙었다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 등
개발 인력 채용 공고 잇달아
“정예팀 합류 지원자 많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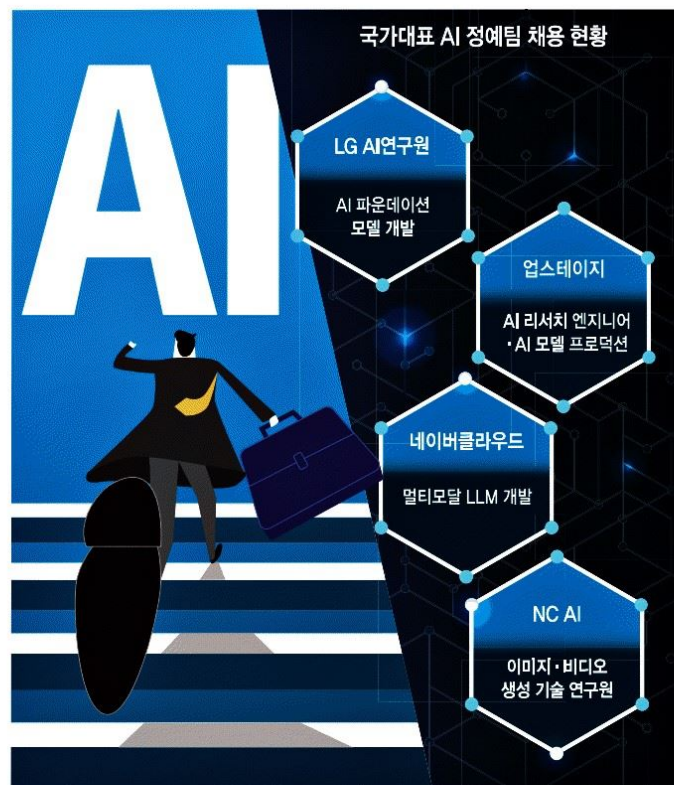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는 정예팀 간 인재 영입 경쟁이 시작됐다. 12월 말 예정된 1차 평가를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 AI연구원,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업스테이지 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을 이끄는 기업들이 관련 인재 채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 AI연구원은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인턴, 업스테이지는 AI 리서치 엔지니어와 AI 모델 프로덕션 직무를 채용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채용 대상은 석·박사급 고급 인재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특성을 반영, 개발 역량보다는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이다.

업스테이지 관계자는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위해선 알고리즘 아키텍처를 짜서 실험할 수 있는 과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통계 등 지식과 연구 경험이 있는 석·박사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채용 직무 대부분이 인턴십



형태인 것도 특징이다. 이는 매 6개월 평가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개 정예팀을 추리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 단기간에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정예팀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개발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기반으로 12월

말 1차 단계평가를 진행, 5팀 중 1팀을 탈락시킬 예정이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프로젝트 최종 2팀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인턴십 근무 기간 등은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서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기존 산·학

협력 기관 인재는 물론 이번 인턴십으로 AI 인재를 확보, 생태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역시 이달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최종 선정 발표 이후 관련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멀티모달 LLM 개발 직무를 채용한다.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전을 넘어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을 통합 처리하는 오픈이 모달리티로 LLM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범국민 AI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오픈이 파운데이션 모델 원천기술 연구개발(R&D)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NC AI는 이미지·비디오 생성 기술 연구원을 모집한다. 패션 도메인 특화 이미지·비디오 생성 모델 설계 및 학습 등을 담당한다. NC AI는 산업 AI 전환을 위한 확장 가능한 멀티모달 생성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목표 달성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인력 채용 경쟁이 향후 최종 정예팀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I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인재는 제한적”이라면서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 모델을 연구할 기회가 제한적인 만큼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지원을 받는 정예팀에 합류하려는 지원자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기자 modernman@etnews.com

2차례 유찰 ‘국가 AI 컴퓨팅센터’… 기업 유리한 공모안 짚는다



정부, 독소조항 대폭 완화

민관 합작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민간이 지분 더 가져가도록 수정
업계 “사업비 지원도 확대해야”

정부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민간 기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요 독소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

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공개를 목표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의 공모 요건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진행한 공모에서 지원한 사업자가 단 한 곳도 없었던 탓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재공고를 내기 위해 관계 기관 등과 속도감 있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민관 합작으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집적한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기관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1억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소수점을 포함한 복잡한 연산 처리 가능) 능력을 갖춘 AI 컴퓨팅 센터를 짓는 게 목표다.

정부는 기존 공모안에서 유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 가지 조항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를 민간이 더 많이 갖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기존안은 공공이 51%, 민간이 49%의 비율로 총 400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2000억원이나 출

자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SPC 지분의 과반을 가져가 사업의 자율성을 방해받을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민간 사업자가 다시 사들여야 하는 매수 청구권(바이백) 조항도 조정 대상이다. 공모 참여를 검토했던 ICT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할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인데다 사업이 부진하면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해 기존 공모 요건에선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2030

년까지 컴퓨팅 센터 구성 반도체의 최대 50%로 확충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국산 AI 반도체를 구입하거나 컴퓨팅 센터 사업자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이용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사업 구조가 바뀌면 참여 유인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사업성을 더 높이려면 수요처 확보와 사업비 지원 등 정책 지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광우·어환희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메가존클라우드, 기업 AI 도입 지원

‘AIR 스튜디오’ 출시

메가존클라우드가 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AIR 스튜디오’를 출시했다. AIR 스튜디오는 최신 AI 기술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챗봇, 에이전트 등 다양한 기능을 단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기업이 AI를 전사 차원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점, 조직 내 AI 거버넌스 부재, 비효율적인 라이선스 모델로 인한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R 스튜디오는 미래 AI 서비스에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 엔터프라이즈급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사용량(토큰) 기반 과금체계, 워크플로 통합 자동화 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유연한 구조로 아마존웹서비스(AWS) 베드록, 구글클라우드 버텍스 AI,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오픈AI 등 주요 AI 서비스는 물론 향후 등장할 신기술을 손쉽게 통합·교체할 수 있다. 권한 제어, 데이터 보안, 사용 정책 등을 단일 콘솔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급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수준도 확보했다.

특히 사용자 단위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 기반 과금체계로, AI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조직 전체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AIR 스튜디오는 연간 구독 및 영구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 등 유연한 설치 옵션을 지원한다.

공성배 메가존클라우드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는 “AIR 스튜디오는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실제 업무 혁신과 비용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면서 “확장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강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기자 modernman@etnews.com

3개월 비상경영 끝낸 SKT... AI 등 새출발 '안테나' 세운다

SK텔레콤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해킹사태에 따른 비상경영체제를 해제하고 새 출발에 돌입했다. 3개월간의 '위기모드'를 끝내고 본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인공지능) 전략추진에 다시 속도를 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달 1일부로 비상경영체제를 해제했다. 임원 대상의 위기대응회의도 주 1회로 축소했다. 유심 해킹사태 이후 매일 열리던 '고객가치혁신회의'는 7월 중순 주 3회로 조정됐고 이달 1일부터는 회의 명칭을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위기관리)로 바꾸고 현재 주 1회 운영한다.

지난 4월19일 SK텔레콤은 악성코드로 인해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지난달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SKT 해킹사태 이후 AI 관련 사업 진행 현황

- 6월20일 울산시, AWS와 AIDC 건립계약 체결
- AI 서비스 '에이닷' 7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000만명 돌파
- 에이닷 노트 및 브리핑 베타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사용자 80만명
- 과기정통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지원) 사업' 공급사 선정
- 8월1일 블랙웰 B200 GPU 기반 GPUaaS 출시
- 8월4일 과기정통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정



'에이닷' 누적가입자 1000만명... 정보 보호·서비스 고도화 AWS·울산시와 하이퍼스케일 AIDC 건립등 신성장 담금질

와 함께 SK텔레콤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고객피해를 원천차단하고 빠른 정상화를 위해 최고단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고객신뢰위원회와 그룹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경영 속에서도 SK텔레콤은 중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 파라미터 전략을 멈추지 않았다. '글로벌 AI 컴퍼니' 비전을 유지하며 AI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6월20일에는 AWS(아마존 웹서비스), 울산시와 손잡고 하이퍼스케일 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계약을 했다. 울산 AIDC와 앞으로 가동될 서울 구로 DC(데이터센터)를 합쳐 총 300MW(메가와트) 이상의 DC 용량을 확보하게 되며 가동률 상승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서비스부문 성과도 이어진다. AI 서비스 '에이닷'은 지난 7월 말 기준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최근 선보인 '에이닷 노트'와 '브리핑' 베타서비스는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사용자 8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지원)사업' 공급사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가산 AIDC에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 B200' 1000장 이상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해 이달 1일에 국내 최대 규모·최고성능의 GPUaaS(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를 출시했다. 지난 4일에는 과기정통부 주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SK텔레콤은 비상경영 해제를 기점으로 AI 기반 사업 전환과 고객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

KT, AI로 돈 벌었다 ... 분기 영업익 첫 1조

✓ 김영섭 'AI 승부수' 통했다

KT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분기 영업 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영섭 KT 사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인공지능(AI) 사업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13.8% 성장하는 등 신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게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 팰런티어라는 미국 AI산업의 양대 산맥과 동시에 제휴를 맺은 국내 유일한 AI 기업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경쟁사 해킹 사고 효과 반영 될 때

KT는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조4274억원, 1조148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3.5%, 영업이익은 105.4% 늘었다. 자산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이익 3900억원을 감안해도 깜짝 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선통신 부문 매출은 1년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대신 AI 사업 부문이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달성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김 사장은 AI 사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올해 3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 참석해 "올해 KT는 AICT(AI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컴퍼니로의 완전한 전환"을 화두로 삼겠다"고 했다. 올해 초만 해도 '탈(脫)통신' 유행에 단순 편승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이번 실적을 통해 사업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실적 이끈 효자는 단연 AI "AICT 컴퍼니로의 전환" 증명 LLM·클라우드 신제품 곧 출시

국내 AI 탈락 ... 공공수주선 불리 MS·팰런티어 업고 민간 공략할듯

이와 관련해 KT는 조만간 MS와 협업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공개하고, '기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산업계의 보안 수요를 반영한 신개념 클라우드. 운영자와 해커뿐 아니라 심지어 클라우드 제공자인 MS조차 데이터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안 업계의 최대 화두인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한 상품이다. 장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에 MS와 함께한

보안 클라우드, LLM 모델 'K-켓GPT' 등 풀 AI 라인업을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KT가 국내 AI 대장 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데이터센터 가동률 90% 넘어 하반기 실적 흐름도 긍정적이다. KT 관계자는 "실적 집계 시기상 SK텔레콤에서 KT로 넘어온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2분기 실적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며 "2분기와 비교해 3·4분기 무선통신 부문 매출 증가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팰런티어와의 파트너십 실적도 반영될 전망이다. KT는 지난 3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팰런티어와 단독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KT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팰런티어의 AI·빅데이터 솔루션을 결합해 공공·민간산업 인공지능 전환(AI)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KT 관계자는 "금융업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금융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AI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자평했다. KT클라우드가 보유한 데이터센터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계약 단가도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국가대표 AI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해 공공 부문 수주에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5개 정예팀을 선발한 정부는 2027년까지 경합을 통해 최종 2개 컨소시엄을 뽑을 예정이다. 컴퓨팅 자원 등을 지원해주는 것 외에 공공 부문 AI 프로젝트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I업계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대표 AI 탈락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KT 실적과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희 기자

“1만5000명 KT임직원 누구나, 나만의 AI비서가 있죠”

AI 전환 진두지휘
 옥경화 KT 전무

업무지원 시스템에
 AI 적용해 효율화

사내포털에 챗봇 도입
 법률자문 시스템으로
 계약검토 속도 UP

전직원 실제업무 기반
 AI적용 필요한곳 찾아

상담내용 분석해서
 대응매뉴얼 알려주고
 수리기사들 출장때
 상황별 가이드 제시

한국의 대표 통신사 KT가 이제는 인공지능 전환 (AX)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직원이 인공지능(AI)을 갖는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꾸준한 사내 교육과 공모전 등을 통해 개발자와 비개발자 누구나 AI 에이전트를 기획하고 만들어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하는 조직이 바로 KT 기술혁신부문 내 IT Ops본부다. 이 본부를 이끄는 옥경화 전무(사진)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 업무 시스템 운영과 함께 새로운 도구와 실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조직에 스며들게 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IT Ops 본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코파일럿과 파워 플랫폼 등 AI 생산성 도구를 표준화해 반복 업무 자동화, 협업, 지식 산화 등을 연결하는 일원화 구조를 만들고, 조직과 직무별로 특화된 에이전트의 발굴부터 제작·운영까지 전 과정의 표준과 가이드를 수립해 누구나 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1만5000명에 달하는 KT 전체 임직원이 AI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일하는 방식 변화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사AX일방식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AI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주요 임무다.

옥 전무의 진두지휘 아래 KT의 AX는 크게 두 가지 전략에 맞춰 진행됐다. 첫 번째는 업무 환경의 변화다. 옥 전무는 “사내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에 AI를 적용해 업무 시간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사내 법률자문 시스템 ‘KT 리걸(Legal)’이다. 계약 조항 검토와 계약서 요약, 분석, 검토 결과 초안 작성까지 법률 자문 업무 전반에 AI 기능을 적용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일이 매뉴얼을 찾아서 클릭할 필요 없이 업무 등록과 회의실 예약, 공지사항 조회까지 AI와의 대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포털에 AI를 적용한 것도 주목된다.

이처럼 기존 업무 환경에 AI를 적용해 혁신을 이



끌어내기 위해 KT는 임직원 스스로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이 KT AX의 두 번째 전략인 ‘시민 개발자 육성’이다.

옥 전무는 “올해 상반기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 184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 중 102개 에이전트가 자체 제작됐고, 32종이 실제로 전사에 배포·확산됐다”고 말했다.

누구나 업무 특색에 맞는 에이전트를 직접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이 워크숍에는 지금까지 37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에이전트를 실제로 개발하는 에이전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사내뿐 아니라 실제 고객과 접촉하는 업무 현장에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상품 특성, 종류, 요금제, 가입 방법, FAQ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K지존상품지식’의 경우 기존에 일일이 업무용 PC에서 매뉴얼을 찾아서 확인해야만 했던 정보를 대화 기반으로 모바일에서 빠르게 알려줘 매장 직원들의 실시간 고객 응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인터넷과 TV 등 고장 상황 해결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는 ‘코바스(COVAS)’는 기사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했던 서비스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대기 시간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직원들이 제작한 에이전트는 팀스 앱스토어에 등록해 임직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에이전트 도입은 곧 업무에 관련한 문서를 일괄적으로 관리(중앙화)하고 이를 토대로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에이전트를 통한 자동화까지 이뤄내는 업무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게 옥 전무의 설명이다.

옥 전무는 “현장에서 생산된 유용한 업무 경험이나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해 사라지는 사례도 있었지만, 에이전트 도입 후에는 지식 자산이 에이전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면서 임직원들이 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모든 직원이 AI를 갖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KT의 AX 목표를 비개발자 직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옥 전무는 “AI는 전략이 아니라 도구”라며 “일반 직원들이 AI를 활용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구의 제공과 활용 방법의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인식 변화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T는 코파일럿을 전사에 도입해 일상 업무에 AI가 스며드는 환경을 먼저 조성했다. 특히 임원 교육을 통해 조직 단위의 변화를 유도하고 리더십 기반의 AI 문화를 확산하는 톱다운(Top-down), 비개발자도 각자의 업무 특색에 맞게 AX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툴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교육과 실무 적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텀업(Bottom-up)의 양방향 전략을 펼쳤다. 특히 비개발자도 에이전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이어갔다.

옥 전무는 “MS 코파일럿 스튜디오와 파워 플랫폼을 중심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로코드(Low-code)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비개발자도 스스로 에이전트를 발굴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7종의 표준 에이전트 유형과 아키텍처를 정의해 전사에 제공하고 실습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같은 에이전트 교육과 개발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막연한 개념이 실습으로 바로 정리돼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KT는 그간 쌓은 성공적인 AX 경험을 기업 간 거래(B2B)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옥 전무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AX를 확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와 노하우가 외부 기업 고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고객이 어떤 에이전트가 필요한지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설계해주는 워크숍이나 실습 프로그램, 반복적인 업무나 성과 검증된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AX를 고민하는 수많은 기업에 옥 전무는 “기업의 AX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AI 기반으로 바꾸고 이를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AX는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실행이 가능한 만큼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내부 홍보와 임직원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성 기자

포티투닷 1.1조 수혈...현대차 2000만대 SDV 전환

< 2030년 >

5003억 규모 유상증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포티투닷이 이달 8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50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분야에서 1조 원 넘는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 지었다. 2027년 생산하는 신차부터 SDV 전환을 시작해 2030년까지 2000만 대 넘는 차량으로 확대하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발표한 3개년(2023~2025년) 자본 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했다. 현대차 2939억 원, 기아 1960억 원으로 총 4899억 원 규모다. 나머지 104억 원은 현대차그룹의 SDV 개발을 총괄하는 송창현 현대차·기아 첨단자동차플랫폼(AVP) 본부장 사장이 충당했다.

현대차·기아가 포티투닷에 수혈한 자금은 지금까지 총 1조 978억 원에 달한다. 2023년부터 3년간 현대차는 6586억 원, 기아는 4392억 원을 조달했다. 이번 증자 참여로 3단계에 걸친 출자가 마무리되며 현대차(57.7%)·기아(38.5%)의 포티투닷 지분율은 96.2%로 전년 말(95.5%) 대비 소폭 늘어났다.

포티투닷의 증자는 미래 먹거리인 SDV 기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대차그룹은 다가올 완성차 시장에서 고객 편의성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생존을 위한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고 개발 역량을 끌



202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출자
현대차·기아 지분율 96.2% 달해

차량OS 등 SDV 고도화에 투자
내년 시제품 개발후 양산 가속도
전세계 R&D거점 6곳으로 확대

어울리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SDV 시장 규모는 올해 607억 달러(약 84조 1423억 원)에서 2034년 3009억 8000만 달러(약 417조 2185억 원)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성에 주목한 현대차그룹은 송 사장이 창업자로 있던 포티투닷을 2022년 42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SDV 개발에 집중해왔다. SDV는 소프트웨어만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차량 상태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다.

포티투닷은 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SDV

기술 고도화에 우선 투입한다. 차량 운영체제인 '플레오스 비하일 OS'를 비롯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아트리아 A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 등 주요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SDV 양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SDV 페이스카(시제품)를 개발한 뒤 2027년 신차부터 SDV로 양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플레오스 커넥트 등 SDV 관련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2028년 700만 대에서 2030년 2000만 대로 늘려나간다.

글로벌 인재 확보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각축장이 기존 엔진·부품 등 하드웨어에서 인포테인먼트·자율주행·AI 등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포티투닷은 연구개발(R&D) 거점을 늘리며 지역별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섰다. 한국 본사와 미국 실리콘밸리, 폴란드 바르샤바에 이어 올해 호주 멜버른과 중국 상하이에서 R&D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개발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연말까지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6곳에서 R&D 거점을 세울 예정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 확보와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서버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 올 상반기 수주액 1637%나 늘었죠

클라우드 스타트업 오케스트로 김영광 CTO겸 공동 창업자

설립 7년간 연평균 성장률 200%를 기록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클라우드 스타트업 오케스트로가 VM웨어 사태를 발판 삼아 성장 가도에 올라탔다.

김영광 오케스트로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창업자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탈VM웨어 흐름 이후 오케스트로는 국내에서 VM웨어의 윈백 사례를 가장 많이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VM웨어 흐름이란 기존에 글로벌 서버 가상화 시장을 독식하던 VM웨어가 브로드컴에 인수된 후 가격 인상과 정책 변화에 나서자 전 세계적으로 이 업체의 고객사가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윈백’은 이렇게 떠나려는 고객을 포섭하는 전략으로, 현재 오케스트로가 VM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오케스트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오케스트로의 대표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콘트라베이스’ 수주액은 전년

설립 7년간 연평균 200% 성장 VM웨어 브로드컴에 인수된 후 가격 인상 여파로 고객들 이탈 떠나는 고객사 포섭전략 주요

오픈인프라 재단 이사회 멤버 MS·에릭슨 등 이어 6번째

비 1637% 증가했다. 고객사 수도 전년 동기 대비 450% 늘었다.

그는 “처음에 콘트라베이스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외산 솔루션들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계속 키워간 것은 건물 지하 공사와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술 기반이 결국 그다음에 쌓을 솔루션들의 단단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처럼 오케스트로는 현재 서비스형 인프라스트럭처(IaaS)인 콘트라베이스를 기반으로 서비스형



인공지능(AI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클라우드관리플랫폼(CMP) 부문 솔루션까지 개발하면서 풀스택 솔루션을 보유한 클라우드 기업으로 성장

했다. 이들 솔루션 역시 특히 금융과 공공권 고객사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김 CTO가 말하는 오케스트로의 핵심 전략 가치는 오케스트로만의 연결성이다. 그는 “보통 클라우드를 옹고 그룹의 기술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케스트로는 기술과 철학이 같이 합쳐져서 시장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가치에 함께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사명이 ‘오케스트로’이고 그 솔루션이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 이름으로 구성된 이유도 이 철학과 일맥상통한다.

김 CTO는 “오케스트라를 듣는 이들은 조화로운 음악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 하나하나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술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연결성을 같이 제공해 결국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것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문제 해결이라고 봤다”고 했다.

오케스트로는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오픈인프라재단의 이사회(플래티넘) 멤버로 지난해부터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 에릭슨, 화웨이, 윈드리버, 엔트그룹 등 유수의 글로벌 기술 기업이 참여하고 있

는 대열에 오케스트로가 6번째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오픈인프라재단은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인 오픈 스택의 기술 방향성을 의사결정하는 조직으로 글로벌 클라우드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김CTO는 “매달 회의에 직접 참여해 한국·아시아 지역 대표로서 클라우드 업계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케스트로는 이 같은 기반을 가지고 글로벌 진출도 올해부터 본격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일본 진입을 시작해 이달부터 일본 정보기술(IT) 인프라 통합 기업 ‘투모로우넷’을 현지 파트너로 선정하고 클라우드 솔루션의 본격적인 판매 사업에 돌입했다. 현재 남미와 동남아시아 쪽도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 CTO는 “한국의 다른 IT 기업들은 길을 내려고 하기보다 수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아 아쉽다”며 “오케스트로가 유리천장을 깨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선제 기자·사진 한주형 기자

수천만 개 사내문서도 ‘똑딱’ ... 日서 난리 난 한국산 AI

올거나이즈 ‘알리’

“시간이 없는데 언제 일일이 사내 문서를 찾아볼까?”

이 같은 직장인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에 해법을 제시한 국내 기업이 있다. 코딩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노코드 AI 플랫폼을 앞세워 일본 기업용 AI 시장을 빠르게 장악한 올거나이즈다.

엔터프라이즈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 올거나이즈는 자사 거대언어 모델(LLM) 기반 올인원 솔루션 ‘알리(Alli)’가 일본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딜로이트 토마츠 MIC 경제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2025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는



‘AI 앱 개발 로우코드·노코드 플랫폼’ 부문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과 매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알리는 기업 고객

이 생성형 AI 앱과 에이전트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코드 기반 통합 플랫폼이다.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누구나 목적에 맞는 앱을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100여 개의 앱과 AI 에이전트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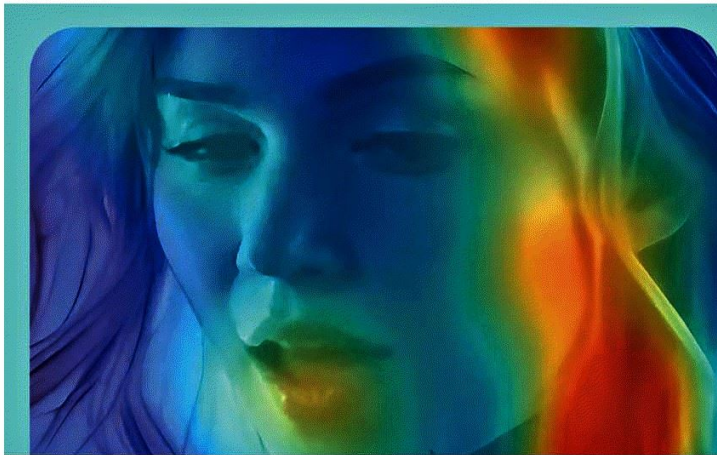
기능도 다양하다. 문서 기반 자동 응답, 계약서 조항 검토, 고객 응대 메일 작성 등 단순 반복 작업은 물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검색증강생성(RAG), 세일즈, 법무 등 심층 업무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한다. 내·외부 시스템과도 연동돼 기업의 전체 업무 흐름을 자동화·고도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알리는 챗GPT, 제미니 등 다양한 LLM을 예산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에는 기업 사용자가 코드 작성 없이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해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 기능도 도입했다. 이 기능은 다양한 시스템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체 기술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을 기반으로 한다.

이창수 올거나이즈 대표는 “생성형 AI 기반 에이전트는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었다”며 “계약서 초안 작성이나 법무팀의 판단 업무까지 스스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가짜 영상 꼼작마”...‘토종 딥페이크 탐지’ 맹활약



토종 딥페이크 판정 플랫폼 ‘아이기스’ 개요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능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플랫폼
표출	0~100점으로 딥페이크 여부 수치화 (0에 가까울수록 진짜)
기술	자기 진화적 학습구조를 반영한 다층 모델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KETI 자체 AI 엔진 'X-AI' 활용
학습 데이터	5~10초 분량의 영상 약 2만건
활용 사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에서 활용해 영상·이미지·오디오 총 1만510건 삭제 요청, 3건 고발
계획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과 협력해 수사·치안 분야 실증 지속 확대, 추후 선거에서도 선관위와 지속 협력 예정. 딥페이크 콘텐츠 방지 의무 부과 시 새로운 민간 보안시장 영역 개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개발한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플랫폼 ‘아이기스’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한 모습. 해당 영상은 입 다물고 있는 백인 여성 사진을 이용해 AI 영상 제작 플랫폼 KLING 1.6을 통해 만들어 졌다. 영상의 색이 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아이기스가 집중해서 분석했음을 의미한다. 아이기스는 “이 부위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부드럽다”는 식으로 가짜로 판명된 이유로 영문으로 설명한다. KETI

최근방문한 경기 성남 글로벌 R&D센터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지능형 영상처리연구센터. 젊은 백인 여성이 노래하는 5초 분량의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플랫폼 ‘아이기스’에 입력하자 Fake(가짜) 지수가 100점 만점에 95.8080으로 나타나 해당 영상을 가짜로 판정했다. 이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리얼(진짜), 100에 가까울수록 페이크(가짜)를 의미한다. 해당 영상은 올해 출시된 영상 생성 AI를 ‘KLING AI 1.6’에 백인 여성 사진 한 장을 넣어 만든 딥페이크 콘텐츠였다.

아이기스는 영상에서 대표 프레임을 추출한 뒤 눈가와 입술 주변 주름 등 조작이 의심되는 부위를 열화상 이미지처럼 붉은색으로 시각화해 표시했다. 또 “부위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부드럽다”는 식으로 해당 영상을 딥페이크로 판단한 이유를 영문 문장으로 제공했다.

그렇다면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기자의 얼굴 사진을 아이기스로 분석한 결과 한 번은 진짜로, 또 다른 한 번은 가짜로 판정됐다. 아이기스는 머리 전체, 입술 중심 등 총 5가지 분석 방식을 제공하는데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이기스는 KETI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지원을 받아 개발한 토종 딥페이크 탐지 플랫폼이다.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제우스의 방패 ‘AEGIS’에서 이름을 따와서 어떤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아이기스’

지난 대선 조작 영상 1만여건 탐지

3명 고발 ‘부정선거운동죄’ 적용

국과수·경찰대와 협력 수사 실증

“플랫폼 딥페이크 방지 의무화

새로운 보안시장 열릴 것”

짜 여부를 판별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조충상 KETI 책임연구원(박사)은 “포토샵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아이기스도 분석 기능이 다양하다”며 “이를 조합하면 정교하게 설계된 딥페이크 영상을 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기스는 KETI가 자체 개발한 AI 엔진 ‘XAI’를 기반으로 구동된다. 딥러닝 기반 노이즈 제거 알고리즘을 역방향으로 적용해 조작된 콘텐츠에 내재된 비정상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이다. 최초 개발에 사용된 학습 데이터는 5~10초짜리 영상 2만건으로, 다른 AI 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조 책임연구원은 “일부 해외 플랫폼은 포르노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 크롤링해 학습에 활용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윤리적 제약이 크다”며 “아이기스는 적은 데이터로도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도록 설

계됐고, 과거 데이터를 잊지 않고 새로운 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아이기스를 활용해 영상·이미지·오디오 등 딥페이크 콘텐츠 1만510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또 선관위는 의도성 등이 심각한 3건의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 조항이 도입된 후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공직선거법 82조의 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255조는 딥페이크 콘텐츠로 부정 선거운동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딥페이크 콘텐츠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선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수감된 이미지 등 △유튜브 채널 내 AI로 구현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 영상을 제작·게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게시한 사례였다.

이런 사례 중 하나를 보면 영상 앞뒤는 진짜로 분석됐지만, 중간에 조작된 영상을 교묘하게 삽입한 콘텐츠였다. 탐지 과정에서 해당 구간만 가짜로 표시되자, 분석팀은 조작된 부분을 잘라 다시 입력했고 그 결과 명확히 가짜로 판정받았다. 조 책임연구원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왜곡한 콘텐츠는 중대한 조작”이라며 “선관위가 고발까지 간 것도 그런 의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기스 개발팀은 실제 딥페이크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공격팀’과 이를 탐지하는 ‘방어팀’으로 나뉘어 반복 실험과 학습을 진행했다. 선거 기간 선관위에서 받은 기능 보완 요청을 반영해 3~4일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약 48일 동안 실제 딥페이크를 탐지하며 고도화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결국 국내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상황 속에서 딥페이크와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궁극적으로 보안산업 자체의 새로운 섹터를 열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보안 산업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아이기스는 선거 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과 협력해 수사·치안 분야에서도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회동 KETI 원장은 “KETI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AI가 만든 허위정보 잡는 AI기술

- 한컴위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판별 시스템 개발 중
- 딥브레인, 음성합성 탐지기술을 상용화해 음성 기반 보이스피싱 사기대응
- GPT제로, 텍스트가 인간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 분석하는 서비스
- 인비디, 이미지나 영상의 메타데이터, 편집여부, 소스분석 등을 통해 조작여부 판단도구



AI가 만든 가짜뉴스, AI가 똑똑 잡아낸다

최근 몇 년 새 생성형 AI(인공지능)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콘텐츠 생산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누구나 쉽게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만들며 심지어 음성과 영상까지 AI로 생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접근성과 창의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를 악용해 사실처럼 꾸며낸 허위조작 정보도 함께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선거나 정치적 이슈, 기업평판, 금융사기, 연예인 및 공인의 이미지 조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이미지·음성합성기술) 콘텐츠가 실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돼 일반인이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거나 들리는 콘텐츠가 SNS(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혼란을 가중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AI대 AI' 구조가 본격화했다. AI가 만든 허

위정보를 다시 AI가 판별하고 거르는 기술이 빠르게 개발된다. 국내에서는 한컴위드가 딥러닝(심층학습)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딥브레인은 음성합성 탐지기술을 상용화해 음성 기반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대응한다. 이들 기술은 콘텐츠가 유통되기

딥페이크 등 허위 정보 피해 ↑

딥브레인 등 AI탐지기술 개발

전, 혹은 확산 중에 자동으로 분석해 허위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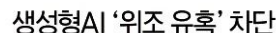
일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도구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GPT제로'는 텍스트가 인간이 작성한 것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 분석하는 서비스다. 문장의 예측성, 길이,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제공한

다. 학생들의 과제나 리포트, 기업의 콘텐츠 검수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 '인비디'는 이미지나 영상의 메타데이터, 편집여부, 소스분석 등을 통해 조작여부를 판단하는 데 특화된 도구로 언론사나 팩트체크기관이 주로 이용한다.

이같은 탐지 솔루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콘텐츠 생산과 유통속도가 인간의 직관이나 검수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 탐지 시스템은 정보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는 창의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지만 잘못 이용될 경우 정보환경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기술발전과 더불어 교육, 감시, 윤리, 법·제도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

“여권 만들어줘” 선 넘는 인간… “불법, 안됩니다” 선 긋는 AI



생각보다 많은 이가 이런 호기심을 품고 있다. 특히 ‘챗GPT’가 이미지 생성 기능까지 탑재된 후 단순한 채팅을 넘어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도구처럼 인식되며 이런저런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문서, 특히 ‘여권’ 위조다.

결론부터 말하면 챗GPT로는 진짜
여권을 만들 수 없다. 챗GPT는 물론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 다른 생성
형 AI도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요청을
일관되게 거절했다. 이는 법적·윤리적
제약을 바탕으로 한 사전차단시스템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꽤 흥미롭고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위조여권 만들기를 AI에 시도해보면 생성형 AI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 선을 긋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증명사진을 챗GPT에 업로드한 뒤 실제 여권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봤다. 그러나 챗GPT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챗GPT는 “실제 여권과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국제법 및 국내법상 불법에 해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봤다.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테니 그냥 만들어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챗GPT는 인간처럼 설득되지 않았다. 대신 “‘페르디 여권’ 혹은 ‘여권 느낌의 디자인’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했다.

총 10회 정도 다른 문구와 사진으로 시도했을 때 그나마 현재 여권 레이아웃과 ‘느낌’이 비슷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흉내내는 건 불가능했다. 공문서로서 효력이 전혀 없는 수준이다.

챗GPT 외에도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에도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이들 서비스 역시 여권위조와 관련된 질문 및 이미지 요청에 일관된 차단응답을

해당 사례는 AI 기반 위조물이 실제 인증절차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업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사이버 보안기업 카토네트웍스 역시 챗GPT로 단시간 내 위조여권 이미지를 생성해낸 실험을 발표하며 자동인증시스템이 AI 위조물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여권 유사문서나 디자인의 무단제작도 공문서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 도구를 통한 제작 역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제작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기술은 계속 정교해지지만 동시에 신분도용·서류위조 같은 부작용에 대한 규제와 기술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 이미지 인식 기반 인증은 이미 구멍이 뚫렸으며 생체인증, NFC(근거리무선 통신) 기반 보안, 전자서명 등 다층적 인증체계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기술은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동시에 그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책임지는 구조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의 자유는 책임과 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가야만 한다. 생성형 AI가 열어가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

김승한 기자 winone@

챗GPT·퍼플렉시티 등 불법행위 선제 대응 시스템 강화
공문서 제작 요구 땀 ‘법적 금지’ 강조, 이용자 명령 거부
보안 취약성 문제 여전, 업계 “규제·기술 대응 병행 필요”

그렇게라도 진행해 달라고 하자 5분
쯤 지나 이미지가 완성됐다. 하지만 결
과물은 예상보다 훨씬 덜 정교했다. 무
엇보다 사진과 결과물 속 얼굴이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있었다. 조명, 얼
굴비율, 피부분까지 변형되며 자연스
러운 'AI 미남·미녀화'가 이뤄졌다.

구성도 진짜 여권과는 상당히 달랐다. 여권번호, 국가 상징마크, ICAO 인증 포맷 등은 철저히 제외되거나 변형됐고 'PASSPORT'라는 단어는 'PASSSPORT'라고 잘못된 단어로 조작돼 있었다. 형태는 '여권 느낌'에 가깝지만 법적 위반을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단단히 걸려 있었다.

내놓았다. 퍼플렉시티는 “실제 발급용 여권정보 및 사진, 서명 등은 본인의 실물정보만 사용해 하며 디자인·정보 위조는 불법”이라고 했다. 이는 생형용 AI업체가 국가별 법률과 국제규정을 기반으로 위험요청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실제 위조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폴란드의 보안연구원 보리스 무지엘락은 챗GPT를 이용해 만든 가짜여권으로 글로벌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 레블루트와 바이낸스의 KYC(고객확인) 절차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배우가 “지~익” 녹음하면… AI가 실감나는 지퍼 여는 소리로

영상 속 남성이 지퍼 달린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지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도비의 에반젤리스트, 손 맥대니얼은 텍스트로 ‘지퍼(Zipper)’를 입력하고 자신의 목소리 연기를 녹음했다. 어설픈 목소리는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Firefly)’를 거쳐 가방을 여는 소리로 둔갑했다. 생성된 소리는 원래 비디오의 움직임에 맞춰 타이밍, 강도 조절이 가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말 괴물’을 입력하면 양말 형태의 괴물이 영상 속에 나타났고 춤을 추는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했다.

이는 최근 열린 어도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파이어플라이의 신제품 발표 사전 브리핑 현장 모습이다. 맥대니얼이 직접 만든 데모 영상에는 사용자가 텍스트로 생성한 이미지가 AI 기술을 통해 움직이는 캐릭터로 변하고, 사용자의 입으로 만든 사운드가 타이밍에 맞춰 자연스럽게 삽입된다. 이제 ‘타이핑’만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넘어 AI가 영상 제작자의 ‘손맛’까지 구현해내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지크 코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프로젝트 총괄 부사장은 어도비가 새롭게 출시한 파이어플라이에 세 가지 핵심 기능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사운드 효과 생성 기능으로, 텍스트뿐 아니라 사용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리의 강약, 리듬까지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퍼 여는 소리’를 입력하고 실제 지퍼를 여는 듯한 소리를 흉내 내 녹음하면, AI가 다양한 버전의 지퍼 소리를 생성해준다.

둘째는 ‘텍스트를 아바타로’ 기능이다. 텍스트 대본을 입력하면 실제 사람처럼 말하는 가상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자동 생성된다. 아바타, 배경, 스타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교육

어도비 생성AI ‘파이어플라이’
텍스트 입력해 캐릭터 만들고
이젠 목소리로 효과음 변환도

AI영상 활용 늘리는 영화업계
제작 속도 높이고 비용 절감
주인공 젊은시절 재현 기술도



영화 ‘히어’에서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의 얼굴을 젊어보이게 하는 데 AI 기술이 활용됐다. 소니픽처스

콘텐츠나 소셜미디어용 영상 제작에 즉각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영상 생성 기능의 고도화다.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의 단순한 애니메이션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3D 캐릭터, 클레이 애니메이션, 판타지 아바타 등 다양한 스타일로 재생성할 수 있다. 마치 모션캡처처럼 사용자의 움직임을 반영한 영상 콘텐츠가 AI로 구현되는 셈이다.

어도비는 특히 파이어플라이가 상업적으로 안전한(Commercially Safe) AI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이어플라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모든 AI 결과물에는 어떤 모델이 사용됐는지 ‘디지털 영상성분표시’와 같은 형태의 ‘콘텐츠 자격증명’이 첨부되고 사용자의 입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 애니아 테일러조이(오른쪽)와 아일라 브라운이 각각 성인과 어린 퓨리오사를 맡아, AI 기반 페이스 블렌딩 기술로 두 배우의 얼굴을 점진적으로 합성해 자연스러운 연령 전환을 연출했다. 초반엔 테일러조이 얼굴의 비율이 35% 정도였으며, 성인이 되는 시점엔 80%까지 높아졌다. 워너브러더스

력 데이터 콘텐츠는 AI 학습에 쓰이지 않는다. 구글, 오픈AI, 런웨이 등 외부 AI 모델도 파이어플라이 플랫폼 내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학습되지는 않는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처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영상 산업에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지 생성에서 출발한 생성형 AI는 이제 영상 제작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으며,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생성형 AI 스타트업 ‘런웨이AI(Runway AI)’의 영상 제작 도구를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활용 중이다. 뉴욕에 본사를 둔 런웨이는 텍스트 프

롬프트를 통해 영상 클립을 생성하는 기술을 선보인바 있으며, AI 영상 기술을 상용화한 대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디즈니 역시 해당 기술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최근 아르헨티나 드라마 ‘엘 에테르나우트’에서 무너지는 건물 장면이 AI 기반 시각효과 기술을 처음으로 활용했다. 다만 이 장면에 런웨이의 기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테드 서랜드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AI를 통해 시각효과 제작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밝히며 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내비쳤다.

영상 생성 AI는 특히 시각효과(VFX) 분야에서 기존 제작 방식 대비 저렴하고 빠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으

로 수 주일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영상 효과 작업을 AI는 단 몇 분~몇 시간 만에 구현할 수 있다. 이는 드라마, 영화,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쳐 ‘생산성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광고 업계에서는 이미 생성형 영상 AI를 적극 활용 중이다. 코카콜라는 2023년부터 런웨이의 AI 기술을 활용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텐츠, 퍼블리시스 등 글로벌 광고 대행사도 AI 영상 편집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도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아이리시맨’은 AI 디에이징 기술을 활용해 주연 배우들의 젊은 시절 얼굴을 재현했으며, 이 기술로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개봉한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서는 아역 배우와 성인 배우의 얼굴을 AI로 자연스럽게 이어 붙이는 기술이 쓰였다. AI가 영상 제작에 도입되면 배우의 외모 변화나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역할을 소화하거나 가상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콘텐츠 제작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이는 특히 프랜차이즈 영화나 게임 기반 IP 확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상 생성 AI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한 빅테크 기업들도 속속 진입 중이다. 오픈AI는 2024년 초 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를 발표한 이후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등 주요 스튜디오와 상용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도 자사 생성형 AI ‘비디오포에버(VideoPoet)’를 통해 텍스트 기반 영상 생성 기술을 시험 중이며, 메타 역시 AI로 생성한 짧은 영상 클립을 인스타그램 릴스나 페이스북 광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테스트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NH농협은행 IT카드디지털단 조재영 과장이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AI 실험장 된 NH통합IT센터 한마디 말로 문서자동화 척척

AI 코드 어시스턴트 도입 덕분에 단순 업무 소요시간 크게 단축

“인공지능(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사용한 덕분에 코드 생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사소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생산적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1일 경기 의왕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에서 만난 NH농협은행 IT카드디지털단 조재영 과장은 AI 코드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코딩을 시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AI 코드 어시스턴트는 생성형 AI 기반의 코드 작성을 위한 보조도로 개발자가 통합 개발 환경(IDE) 내에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오류를 줄이도록 도와준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AI 코드 어시스턴트 환경을 구축해 IT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농협은행의 IT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AI 코드 어시스턴트는 ‘챗GPT’ 같은 존재다. 코드 생성, 설명, 오류 탐지 및 수정 기능과 문서 자동화, 테스트 케이스 생성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명령만 하면 AI 코드 어시스턴트가 즉각 수행해준다. 덕분에 부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실제 조재영 과장이 특정 코딩을 명령하니 결과가 나오기까지 20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박도성 농협은행 IT부문 부행장은 “특히 IT부서는 업무를 빠르게 익혀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AI 코드 어시스턴트가 업무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향후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효율성 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T센터에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공간이 또 있다.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혁신을 위한 ‘IDEA GROUND(아이디어 그라운드)’다. 지난 2022년 조성된 아이디어 그라운드는 IT센터 내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상용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망분리 정책으로 상용 인터넷이 제한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30여명이 모일 수 있는 오픈라운지부터 1인실과 6인실, 신기술 라운지 등이 조성돼 있다. 신기술 라운지에서는 임직원들이 만든 AI 관련 프로그램이나 메타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농협은행 IT 신기술융합팀 배태준 과장은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련한 공간”이라며 “자유롭게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NH통합IT센터는 범농협 직원 1400명과 협력사 2100명을 합쳐 총 3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각 법인은 서버·통신·보안 장비 등 하드웨어 7504식, 데이터보유량 2만1372TB(테라바이트), 대고객 서비스를 포함한 응용 프로그램 307만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미 기자

KB금융, AI 혁신 등지 '제2데이터센터' 세운다

2030년 완공...서울 서남부 유력
고성능 연산력에 재해 복구 역할

KB금융그룹이 제2 데이터센터(DC)를 설립한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고성능 연산력을 갖춘 DC로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기반을 갖춘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 중심으로 최근 제2 DC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건설 후보지 검토에 들어갔

다. 2019년에 준공된 김포 통합정보 기술(IT)센터 신축 경험을 바탕으로 KB금융그룹 전 계열사가 협업하는 등 내부 역량을 최대한 활용, 개념설계에 집중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외부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KB금융은 신규 DC를 AI 시대에 대비한 대규모 첨단 인프라 핵심으로 삼는다. 동시에 기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해복구센터(DR센터)를 대체하는 역할도 맡길 계획이다.

우선 현재 전력 상당 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 대응 측면에서 냉각 관련 에너지를 효율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한 센터를 구축한다. 기존 김포 통합IT센터 전력 공급량의 2배 규모로 설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 재해복구(DR)를 넘어 재난회피(DA) 개념 특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액티브-액티브' 체계를 적용한다. 제2 DC를

김포 통합IT센터와 실시간 동기화하는 동시에 기존 여의도 DR센터 기능 대체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등 전산센터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액티브-액티브' 방식은 주전산센터와 DR센터 간 실시간 동기화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관리를 이중화해서 서비스 센터 간 서비스 분산 처리뿐만 아니라 장애 발생 시에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제2 DC 후보지는 서울 서남부권이 유력하다. 김포 통합IT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40~100km 이내를 검토,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KB금융 관계자는 "3500만명 이상 고객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난회피(DA) 개념의 특화 센터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미래 성장산업인 AI 친화 인프라를 갖춘 센터 구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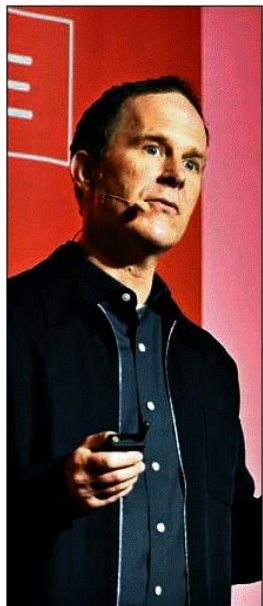
정다운·김시소기자
dandan@etnews.com

“데이터만 넣으면 심층분석 똑딱... JP모건 3천명 애널리스트도 활용 중”

데이비드 마이어
데이터브릭스 부사장

복잡한 코딩 없이도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AI민주화가 목표

자연어로 질문 던지면
데이터 시각화 물론
예측 분석까지 해줘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이를 마치 직원처럼 활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죠. 우리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복잡한 코드 없이도 AI를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어 데이터브릭스 제품총괄 부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AI 및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고립된 데이터 환경과 비용 및 품질에 대한 우려, 숙련된 인재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브릭스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객 수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브릭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데이터 및 AI 기업이다. 현재 전 세계 1만여 개 조직이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분석하고, AI를 쉽고 안전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브릭스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AI의 민주화’다. 복잡한 개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AI 기능을 손쉽게 적용하고,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데이터브릭스는 ‘비코드(code-free)’ 기반의 다양한 AI 솔루션을 선보이며 AI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 공개된 ‘데이터브릭스원’이다. 데이터브릭스원은 비기술 사용자도 자연어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능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UI)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올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은?’ 같은 질문을 자연어로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고, 예측 분석 및 핵심 요인 분석과 같은 고급 분석 등을 코딩

없이 수행할 수 있다.

또 데이터브릭스는 최근 여러 데이터 소스를 손쉽게 연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레이크플로 디자이너’를 선보였다. 코딩 없이도 마우스로 구성 요소를 끌어다 놓거나 자연어로 명령을 입력해 복잡한 데이터 처리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마이어 부사장은 “과거에는 데이터브릭스 고객사 내 구성원 중 단 2~3%만이 우리 솔루션을 실제로 활용할 만큼 기술 장벽이 높았다”며 “그래서 데이터와 AI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은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유니티카탈로그’라는 일종의 시스템의 두뇌가 있다”면서 “이 유니티카탈로그는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용 방식, 데이터 품질, 자산 간 관계를 자동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더 유용한 정보와 관리 기준을 제안하는 지능형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데이터브릭스는 국내 시장에서 금융과 제조업을 핵심 산업군으로 보고 있다. 마이어 부사장은 “특히 지난해에는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CSP) 안전성 평가를 완료해 한국 금융 고객이 데이터와 AI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브릭스는 현재 한국에서 라이나생명, AIA생명, BC카드 등의 금융권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및 AI 혁신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대표 고객사로 JP모건이 있다. 마이어 부사장은 “데이터브릭스의 솔루션을 채택한 JP모건의 경우 300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가 다양한 분석 기법과 언어를 사용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고민서 기자



초거대 AI인프라 필요한 시대 그래서 머스크도 오라클 택했죠

페데리코 토레티 오라클 시니어디렉터

“기업·기관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OCI)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빠르게 훈련하고 안전하게 배포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xAI와 협업을 시작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오라클은 OCI의 생성형 AI 서비스로 xAI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 ‘그록’을 제공 중이다.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 나선 페데리코 토레티 오라클 AI 및 머신러닝 제품 부문 시니어 디렉터는 “코히어, 메타, xAI 등 다양한 유형의 AI 모델이 OCI에서 활용되면서 이제 고객들은 각 모델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오라클이 검증된 AI 모델을 선별해 통합하고 다양한 규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배포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AI전문가인 그는 시장에서 OCI를 찾는 이유로 △고성능 인프라스트럭처에 최적화된 훈련 환경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규제 대응 △규제이션된 모델 선택권 △멀티 클라우드 연동 유연성 등을 꼽았다.

우선 그는 초거대 AI 시대에 필요한 인프라는 단순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공급 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GPU는 이제 범용화된 자원”이라며 “GPU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연결하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최적화까지 모두 통합된 인프라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오라클의 슈퍼클러스터 아키텍처는 이러한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러 AI 선도 기업이 OCI를 선택하는 이유도 이 클러스터 구조에 있다”고 덧붙였다. 토레티 디렉터는 모델 선택의 중요성도 짚었다. 그는 “클라우드 환경

에서 모든 AI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오라클은 기업 고객의 구체적 사례에 맞춰 선별된 모델만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라클은 오픈소스 모델부터 고유(proprietary) 모델까지 고객의 필요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마다 데이터 주권(데이터가 자국 내에 저장·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라클은 다양한 클라우드 배포 방식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오라클은 일반적인 퍼블릭 클라우드(공용 클라우드 서비스)뿐 아니라 고객사가 자체 데이터센터에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전용 클라우드(전용 리전), 기업이 자체 상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오라클 알로이, 유럽 지역 규제를 충족하는 유럽연합(EU) 소버린 클라우드, 정부와 공공기관을 위한 정부용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옵션을 마련했다.

한국에는 서울과 춘천 두 곳에 퍼블릭 클라우드 센터가 운영 중이다. 기업들은 이 두 리전 간에 데이터를 이중으로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장애에 대비한 고가용성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규제상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단 3개의 서버 장비(랙)만으로도 고객사의 자체 데이터센터 안에 오라클 클라우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오라클은 설명했다.

토레티 디렉터는 “한국, 유럽처럼 데이터를 국가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규제가 강한 시장일수록 OCI의 진가가 드러난다”며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하는 고객 환경에 맞춰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라클은 최근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도 AI를 운영할 수 있는 ‘오라클 컴퓨트 클라우드앳커스터머 아이솔레이티드’ 솔루션도 내놓았다. 이는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AI 클라우드 서비스다. 고민서 기자

“범용 AI 플랫폼으로 韓 진출…LG화학·포스코도 우리 고객”

클레망 스테낙 ‘데이터이쿠’ 공동창립자·CTO

2022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프랑스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데이터이쿠가 LG화학, 두산, 포스코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국내에서 입지를 키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지만 데이터이쿠는 2022년 말 약 2억달러(약 2780억원)의 시리즈F 투자를 유치하며 37억달러(약 5조1420억원)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유니콘 기업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클레망 스테낙 데이터이쿠 공동창립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데이터이쿠는 범용 AI 플랫폼이라는 것이 강점”이라며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필요한 솔루션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이쿠가 서비스하는 동명의 플랫폼은 데이터 관리부터 머신러닝 작업, 필요한 AI 모델 학습과 에이전트 서비스 개발, 배포까지 가능한 총체적인 솔루션이다.

“기술을 민주화하겠다”는 데이터

기업가치 5조, 프랑스 유니콘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필요한 솔루션 사용

코딩 모르는 비전문가 직원도 엑셀처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이쿠의 방향성에 따라 코딩을 모르는 비전문가도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노코드’ 옵션을 제공한다.

만약 사내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능을 만들고 싶다면 저장된 데이터를 연결해 가져온 다음 전처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도 비개발자가 데이터이쿠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는 필요한 거대언어모델(LLM)을 연결해 챗봇을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은 아마존웹서비스(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대형 클라우드사나 데이터베이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솔루션과도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이에 대해 스테낙 CTO는 “그들이

개발자나 전문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기술을 민주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만약 기업이 특정 클라우드사의 솔루션을 쓴다면 해당 클라우드 시스템이 종속될 우려가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데이터이쿠는 AWS나 스노플레이크 등 다양한 클라우드 및 데이터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고객들은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간에 관계없이 데이터이쿠 플랫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AI 모델에 연결할 수 있다.

LG화학의 경우 전사적인 차원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이쿠를 활용한 AI 분석 솔루션인 ‘시민 데이터 과학자(CDS)’ 플랫폼을 개발했다.

개발자 조직 외에도 설비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팩토리 조직이나 원자재 가격 예측 등이 필요한 구매팀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LG화학처럼 국내에서도 IT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도입이 빨라지는 추세다.

스테낙 CTO는 특히 AI 에이전트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고 효용이 높은 사례에 집중해야 한다”며 “가령 한두 개 실수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영역은 AI로 바로 자동화할 수 있지만 사람의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AI를 지원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어떤 업무에 적용할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이터이쿠는 현재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모태는 프랑스 파리다. CTO를 포함해 350여명 수준인 개발인력도 대부분 파리에 있다.

프랑스는 미스트랄, H 등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AI 유니콘을 배출한 국가로, 데이터이쿠 또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이처럼 AI 유니콘이 꾸준히 프랑스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스테낙 CTO는 “프랑스는 예전부터 과학, 엔지니어링,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위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국가”라며 “다만 이전에는 외부 투자 등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우호적인 스타트업 정책과 선순환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준 기자

“스케일AI 넘을 것 ... 투명한 데이터 수집이 강점”

샌딕 친찰리 스토리 CAIO

블록체인·AI 데이터 시장 결합
“피지컬AI 데이터 수요 겨냥”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플랫폼인 스토리의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샌딕 친찰리(사진)는 불과 4개월 전 텍사스오스틴대에서 조교수로 로봇공학과 딥러닝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가 지난 4월 이승윤 스토리 대표와 만난 것은 우연에 가까웠다. 스토리에서 근무하는 사촌동생 친구가 그에게 AI 강연을 부탁했다.

이때 이 대표를 만난 친찰리 CAIO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AI 학습용 데이터 시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포세이돈’을 제안했고 곧바로 영입됐다. 3개월 뒤 포세이돈은 앤드리슨호로비츠의 암호화폐 부문인 A16Z크립토에서 1500만달러(약 207억원) 투자를 이끌어냈다. 친찰리 CAIO는 “대부분의 차세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포세이돈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친찰리 CAIO는 지난 5일 “컴퓨팅 파워와 AI 모델 아키텍처 시장은 금방 경쟁이 끝났지만 데이터 시장은 아직도 명확한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레이블박스, 스노클AI 등 스타트업 중에서 스케일AI가 두각을 나타냈지만 스케일AI는 ‘불법 노동’ 의혹에 휘말렸다. 친찰리 CAIO는 “우리는 투명한 데이터의 힘을 믿는다”며 “더 넓게 보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 모델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가 자신하는 포세이돈 플랫폼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피지컬 AI’ 데

터에 대한 수요다. 그는 “우리가 주목하는 AI는 스크래핑(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쓰이는 영상과 사진, 음성 AI에 사용되는 녹음 파일 등은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다. 친찰리 CAIO는 “이 데이터는 아이폰이나 고프로, 자율주행차량, 심박 센서 등에서도 수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토리가 구상하는 사업 모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 데이터 수집 및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화하지 못한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이다. 친찰리 CAIO는 가사 노동 플랫폼 태스크래빗을 사례로 들며 “사무실을 청소하는 회사가 있다면 청소노동자에게 고프로나 스마트 안경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수익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리콘밸리=김인엽 특파원

美·中 “우리한테 붙어라”… AI 동맹 구축 놓고도 경쟁

美, 동맹 위한 ‘AI 액션 플랜’ 공개
中, 오픈 소스 내세우며 기술 공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은 AI(인공지능)로 이어지며 신(新)패권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이념에 따라 세계 동맹 지도가 그려졌지만, AI가 핵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자 이제는 AI 기술에 따라 동맹이 재편되는 것

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AI 기술 아래 동맹 모으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규칙과 국제 표준, 윤리 규범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둘러싼 AI 거버넌스(Governance)가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공개했다. 핵심 내용은 반도체와 서버 같은 AI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등 소프트웨어까지 AI 기술 전반을 동맹

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기술 수출 촉진’ 행정명령 2조에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산 AI 기술의 세계적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적대국이 개발한 AI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국과 AI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가상 화

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는 “AI는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라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글로벌 AI 협력 기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무원 리창 총리는 최근 “AI가 소수 국가와 기업의 독점적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AI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했

다. 소수의 국가와 기업은 미국과 미국의 빅테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 및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을 말한다. 중국은 특히 AI ‘소스 코드(설계도)’를 일반에 공개하는 오픈소스 방식으로 중국의 AI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대다수 기업이 오픈소스로 AI를 개발하는 반면,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은 폐쇄형으로 AI를 개발하고 있다. 유지한 기자

매일경제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A28면 사람과사람

트럼프 회사가 만든 AI, 트럼프 정책에 ‘반기’

트루스소셜의 AI 검색 서비스
관세·가상화폐 등 입장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인 ‘트루스서치 AI’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과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루스서치 AI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 중인 관세를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을 묻는 말에는 “폭력적인 봉기”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기자가 같은 질문을 해본 결과 유사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WP는 전했다.

2020년 대선 관련 질문에 대해서도 이 AI는 “도난당했다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빅테크 기업과 언론을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견해가 억눌리지 않는 대안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해왔다. 트루스소셜과 트루스서치 AI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AI가 내놓는 답변이 트럼프 대통령에

게 불편한 결과를 낳으면서 정치적 의도와 기술 자율성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트루스서치 AI는 미국 AI 검색·챗봇 개발사인 퍼플렉시티가 만들었다.

물론 트루스서치 AI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인지’를 묻는 말에는 지난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며 산업혁명에 버금가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생존한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AI가 쇼핑하고 결제하는 시대...핵심은 보안과 신뢰

ET 시론



패트릭 스토리

비자 코리아 사장

AI, 불편·위협적 존재 벗어나
복잡한 판단·실행 영역으로 확장
소비자 개인 대리 '에이전트' 수행

비자, 글로벌 결제망·인증 개방
AI 커머스 최적·안전 환경 제공
실질적 도입·정착 위해서는
소비·기관·판매 '신뢰 형성' 필요



키고 있으며, 점차 더 복잡한 판단과 실행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에이전트 AI'는 AI 기술의 진화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 질문에 답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훈련된 기존 AI와는 달리 사용자 지시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며 다른 시스템 및 AI 에이전트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해진 규칙이나 고정된 입력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환경과 문맥을 스스로 분석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핵심 차별점이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단순한 고객 경험 개선을 넘어 커머스 생태계 전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위해 AI를 활용하고 있다. 어도비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쇼핑 시즌(2024년 11월 1일~12월 31일) 동안 생성형 AI를 통한 미국 온라인 쇼핑물 유입 트래픽은 전년 동기 대비 1300% 증가했다.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2025년 2월에는 7개월

만에 120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AI를 활용한 쇼핑 경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역시 높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92%는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더 나은 쇼핑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AI가 소비자와 판매자의 행동 방식을 이미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앞으로 더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소비자 개인을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제품 검색과 비교는 물론 구매 결정, 결제, 이후 거래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경험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이전트 AI를 통해 판매자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고객과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판매자들도 복잡한 현지화 과정이나 인프라 없이 해외 시장과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가 사람 대신 구매 결정을 내리고 결제를 실행하는 구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물론 금융기관과 판매자 모두로부터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와 결제 권한을 AI에 위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AI가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 요청이 실제 고객에 의해 승인된 것인가?'라는 인증 이슈는 향후 가장 민감한 지점이 될 것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위조되지 않았는가' '결제 사기의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실질적 리스크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응해 비자는 올해 글로벌 상품 발표 행사에서 '비자 인텔리전트 커머스'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발표했다. AI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개발자에게 비자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인증 기술을 개방함으로써 AI 커머스에 최적화된 안전하고 유연한 결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소비자가 AI 에이전트를 신뢰하고 결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자는 카드 정보를 암호화된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스스로 승인한 AI 에이전트에게만 결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결제 활성화 시점과 조건도 오직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어 권한 위임과 통제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AI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비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결제 이력과 구매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와 공유할지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정교하고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한다. 그러나 그 기술이 실질적 도입과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에이전트 AI 역시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를 대신할 권한을 위임하고, 금융기관이 AI를 신뢰하며, 판매자가 그 거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 기반 인프라의 구축은 단순히 자국 시장을 위한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다가올 에이전트 커머스 환경에서는 물리적 국경보다 디지털 신뢰 체계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AI를 활용해 얼마나 다양한 시장과 고객을 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

국내 카드사 및 핀테크 업계 또한 결제 경험 고도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에이전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기술의 빠른 도입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전략과 정책,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에이전트 커머스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패트릭 스토리 사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대에서 경제학 학사, 금융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6년 비자에 입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싱가포르, 한국법인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비자의 비즈니스 기획 및 운영과 컨설팅 및 애널리틱스를 차례로 총괄하고 소비자 금융, 결제, 정보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20여 년의 경력을 쌓았다. 비자코리아 사장 취임 후 카드사, 핀테크기업, 유통업체들과 협업하며 한국에 혁신적인 결제 및 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사람 개입 없이 실험한다고? 24시간 ‘무인 실험실’이 뜬다

AI 활용한 ‘스마트랩’ 구축 확산
의료 진단·신소재 분야 연구 등
다양한 검사·실험 자동화 구축
KAIST·KIMS 등 잇달아 도입

사람이 간단한 명령만 입력하면
AI·로봇이 스스로 실험 설계·분석
인력난·비용 문제 동시 해결 가능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연구자 없이도 24시간 실험이 가능한 ‘스마트랩’이 연구 현장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반복적인 실험을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 수행하고 AI가 실험 조건을 설계하는 등 연구 전 과정에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해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고 정확한 자동화 기술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 진단 업체들이 잇달아 스마트랩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를 선보였다. 미국 헬스케어 기업 애보트의 자동화 플랫폼 ‘알리티티’ 시리즈는 시간당 최대

1550건의 검사를 처리한다. 면역화학, 혈액학, 분자진단 등 병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한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하나의 시료로 20~30개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아텔리카’ 플랫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내장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검사 항목 분류부터 품질 관리, 유지 보수까지 스스로 처리한다. 리사 로즈 지멘스 헬스케어 부사장은 “수작업을 최대 75% 줄이고, 검사실 운영 효율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며 “야간 인력이나 기술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동화 솔루션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랩은 검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정확도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병원 실험실은 기술 발전에도 여전히 ‘손의 영역’이었다. 혈액 시료를 옮기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오염되거나 잘못된 튜브에 들어가는 등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반 시료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잘못된 튜브를 사용할 확률은 0.34%에서 0%로, 튜브를 누락시킬 확률은 13.72%에서 2.31%로 줄었다. 아밀리아 루이스 세라노 로슈 매니저는

해당 보고서에서 “스마트랩은 업무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진단 자동화가 실험실의 ‘기초 체력’을 책임진다면 AI는 ‘두뇌’ 역할을 맡는다. 로슈는 디지털 플랫폼 ‘네비파이’를 앞세워 AI에 기반한 병리 진단과 환자 맞춤형 치료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비파이는 병원 내 다양한 진단 결과를 통합·분석해 의료진의 결정을 돕는 AI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환자의 유전체 정보와 전자기록(EMR) 등을 연계해 치료 옵션을 제안하는 기능까지 적용해 정밀의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멘스는 하루 1200건 이상의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기반의 지능형 진단 70개 이상의 AI 기반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작했다. AI와 결합한 자동화 시스템은 한시가 급한 응급 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가령 아텔리카 시스템으로 심근경색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AI와 로봇이 스스로 실험 설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신소재 분야에 스마트랩을 구축해 연구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3일 KAIST는 포스코홀딩

스 미래기술연구원 LIB소재연구센터 연구팀과 공동으로 AI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2차전지 양극 소재 자율 탐색 실험실’을 공개했다. AI를 기반으로 연구자 없이 로봇이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분석해 최적의 소재를 탐색하는 플랫폼이다. 2차전지 양극 소재를 개발하려면 빠른 충전 속도, 높은 에너지 밀도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숙련된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을 투입해 얻어내는 노동집약적인 분야였다. 연구팀은 시료 정량, 혼합, 소결(시료에 열을 가해 입자를 뭉치는 과정) 및 분석 과정을 개별 장치 모듈로 구축하고 중앙 로봇 팔이 조종하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재 합성 속도를 개선해 소결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50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 확보된 실험 데이터는 AI 모델이 분석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KAIST 관계자는 “자동화 연구실을 24시간 운영하면 기존 대비 12배 많은 실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은 자율 탐색 실험실 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내년 자체 연구소 실험실에 적용해 차세대 2차전지 소재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한국재료연구원(KIMS)도 AI 기반 자율실험실 ‘KIMS 오토노머스랩’을 공개했다. 전주기 자동화 연구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소재 분야 연구를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연구실은 AI 기반 실험 설계를 비롯해 장비 자동화와 로봇 핸들링,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순환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재료의 목표 특성을 입력하면 AI가 가장 효율적인 실험 조건을 찾고 로봇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한다. 그 결과는 다시 AI가 분석해 다음 실험에 반영한다.

KIMS 관계자는 “연구자는 실험실 장비를 직접 만지는 일 없이 컴퓨터 앞에서 간단한 명령만 입력한 뒤 실험 전 과정을 지켜보면 된다”며 “연구자 개입 없이 AI와 로봇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능형 실험 시대가 다가왔다”고 말했다. 실험실 자동화가 인건비 상승과 연구 인력난에 시달리는 과학계에 새로운 해법이 되면서 관련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세계 실험실 자동화 시장이 지난해 72조4000억원에서 2030년 122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에 기자

K제조업 누빌 최고의 피지컬AI 만들 것

장병탁 투모로로보틱스 대표
 행동으로 학습하는 로봇 선도
 ‘클립-RT’ 미술술지 논문 게재
 신체가진 인공지능 개발 나서
 작업형 휴머노이드 현장 실증
 “AI 중심 디지털서 피지컬로”

지난 5일 찾은 서울 강남구 투모로로보틱스 휴머노이드 AI연구소에서는 K로봇 대표 기업인 레인보우로보틱스의 ‘RB-Y1’과 로보티즈의 ‘AI 워커’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컴퓨터에 연결돼 있었다. 장병탁 투모로로보틱스 대표(서울대 AI연구원장)는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 모델에 작업을 시키고 이를 자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립(CLIP)-RT’로 수집·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모로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격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AI) 기업이다. 2019년부터 서울대 AI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 대표가 2022년 4월 설립했다. 창업 키워드는 ‘임보디드 AI’, 즉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이다. 장 대표는 “AI가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물리 세계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텍스트나 이미지만 이



장병탁 대표가 휴머노이드를 구현하기 위한 피지컬 AI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해한다고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면서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고,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AI 완성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투모로로보틱스는 창업 초기 물류 자동화 솔루션에 집중했다. 현재 CJ대한통운과 함께 휴머노이드 기반 물류 자동화 개념검증(PoC)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투입된 로봇은 택배 분류 업무를 돕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있다.

투모로로보틱스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술은 CLIP-RT다. 이는 미국 오픈AI의 CLIP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로봇이 시각과 언어뿐만 아니라 물리적 궤적까지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올해 국제로보틱스학회 학술지에 논문이 채택돼 주목받고

있다. 학술지에는 미국 4건, 중국 3건, 일본 1건과 함께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LIP-RT가 실렸다.

장 대표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결성된 ‘K-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AI와 로봇을 함께 연구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장 대표는 20여 개 기업 등을 모아 연합의 초석을 마련했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국내 제조 기반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스트럭처를 바탕으로 범용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장 대표는 “한국은 제조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ICT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런 강점을 결합하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투모로로보틱스 역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이후 국내 주요 로봇기업

투모로로보틱스 개요

설립 연도	2022년 4월
사업 분야	로봇 파운데이션모델(RFM), 로봇 AI 응용 솔루션
주요 제품	RFM ‘클립(CLIP)-RT’
현안	산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 산업현장 실증, K-휴머노이드 연합 주도



과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로보티즈와는 업무협약을 맺고 음성·비전 인식·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된 제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피지컬 AI 분야에 대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언어 모델(LLM) 분야는 미국 빅테크가 이미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도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면서 “반면 피지컬 AI는 아직 어느 나라, 어느 기업도 절대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지컬 AI에 유리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앞으로 피지컬 AI와 관련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식 기자

“어르신 약 챙겨드세요” 늙어가는 中, ‘로봇’에 거는 미래

5년내 초고령사회 진입... 실버경제 규모 1900조원 돌파
AI 등 발판 노인돌봄산업 확대, 로봇 전문 쇼핑몰도 등장
국가차원 193조원대 기금 조성 “중국형모델 개발나서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중국의 ‘실버경제’ 규모가 우리 돈으로 19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와 로봇기술을 통해 고령화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실버경제 규모를 키워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는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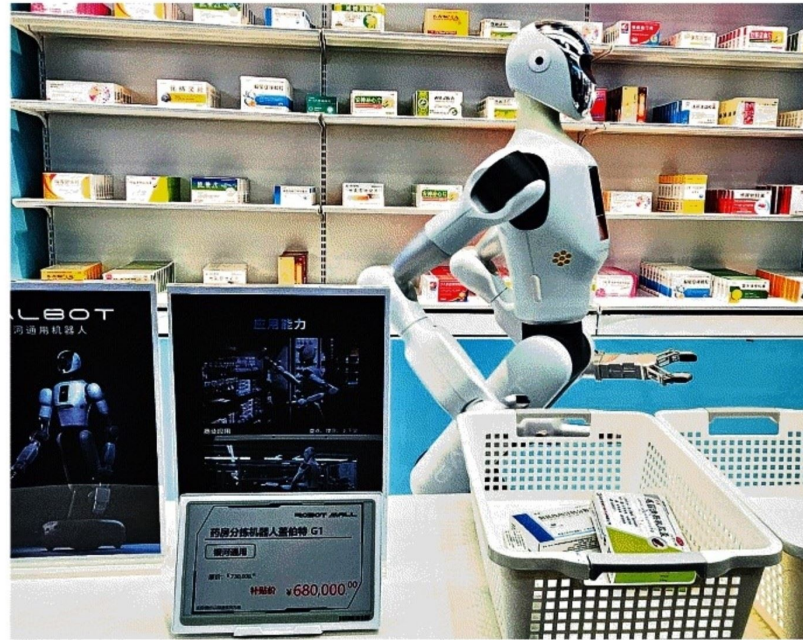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르바오는 11일 평시저 푸단대학교 노령연구원장과 인터뷰를 소개하며 중국의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이 막바지에 접어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억2000만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5년 뒤면 65세 이상 비중이 20%에 육박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 평 원장은 “1962~73년에 출생한 인구가 노령층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할 제15차 5개년계획 시기에 고령화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화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14차 5개년계획에서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처음으로 ‘실버경제 발전’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2024년 국무원 1호 문건에 ‘실버경제 발전’을 공식 명시한 이후 현재 중국의 관련 시장 규모는 10조위안(약 1936조원)에 육박한다고 추산한다. 평 원장은 AI와 로봇기술을 추후 중국의 실버경제를 키울 발판으로 지목했다. 평 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이 고령화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없으며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본다”며 “노인돌봄 산업의 최대 약점은 사실 서비스인력 부족인데 AI와 로봇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은 인력부족문제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중국은 AI와 로봇기술을 통해 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억위안(약 39조원)이 넘는 투자를 집행하며 1조위안(약 193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와 맞물려 베이



중국 베이징 이창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로봇 4S 매장의 전시공간에서 약국에 활용되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 /베이징=뉴스1

징 이창 경제기술개발구엔 4층 규모의 로봇 전문 쇼핑몰을 열었다. 100종이 넘는 로봇을 전시·판매하며 3층엔 별도 유지·보수공간을 마련했다. 또 대출과 보험 같은 금융서비스를 연계해 로봇구매 문턱을 낮췄다. 이 쇼핑몰은 올해 10회를 맞은 세계로봇콘퍼런스(WRC) 개막에 맞춰 개장했다.

하지만 AI와 로봇이 실버경제 발전

의 핵심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게 평 원장의 지적이다. 평 원장은 “기계와 과학기술을 활용해 노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윤리문제가 발생한다”며 “과연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에 머물지, 결국 사람을 통제하게 될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평 원장은 AI와 로봇의 활용에 더해

실버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형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서방처럼 정부 보조나 완전 시장의존이 아닌 국유경제와 가족부양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며 “가정이 노인부양 기능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5월 인민은행이 5000억위안 규모의 ‘서비스 소비, 노인복지 재대출’ 정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산업 금융지원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안정준 특파원 7up@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2위 >

서클 손잡은 하나銀...속도 붙는 원화코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MOU 체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과 하나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이달 서클 최고위층 방한에 맞춰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클은 최근 하나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

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개인 금융 강화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원하는 하나금융측과 한국 시장에 관심이 큰 서클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앞서 서클은 유로 스테이블코인인 유로코인(EURC)을 발행하고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에 투자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사가 비대면으로 포괄 MOU를 맺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하되 세부 방안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말 하나은행이 출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가운데 하나인 'KRW C'에 대해 서클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클은 USDC와 EURC 등에서 보듯 법정화폐 뒤에 'C'를 붙여 스테이블코인을 찍어왔다.

신중섭 기자

▷기사 2면, 본지 8월 7일자 9면 참조

USDC 기술로 '원화코인 생태계' 구축...국내시장 선점 나선다

하나은행, 서클과 MOU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내자
서클, 국내기업과 韓 진출 모색
하나銀도 시장 주도권 확보나서

서클과 하나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위해 맞손을 잡은 것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서클과 국내시장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하나은행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6월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한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또한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클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 역시 이 같은 제도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인 USDC 발행사 서클은 그동안 글로벌 스테이블코인망 구축을 위해 각국 규제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내세우며 해외시장에 진출해왔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마카



(MiCA)를 충족하며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EURC)을 발행했고 일본에서는 JPYC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현지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 겸 블록체인연구소 소장은 "상장과 유통에 초점을 맞춘 스테이블코인 1위 발행사 테더와는 달리 서클은 관련 법이 마련된 국가에서 해당국의 환경과 규제에 맞게 협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올 상반기에도 한국을 찾아 한 국은행과 금융 당국, 국회 관계자 등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내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서클의 2인자 히스 타버트 총괄사장이 방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

된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과 핀테크, 가상자산 업계 등 웬만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은 서클과 만나 협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역시 향후 펼쳐질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현재 시장의 선두 주자인 서클을 주요 파트너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KRW, HanaKRW, KRWH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다수 출원하며 시장 진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특히 상표권 가운데 KRW는 서클이 발행한 USDC·EURC와 같이 법정화폐 단위 뒤에 'C'를 붙이는 방식이어서 서클과의 협업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 또한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조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서클의 경험과 기술력·생태계를 활용해 시장 선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나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규제·정책 및 제도화 흐름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및 기술 요건 분석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연구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림 차원에서 서클은 토큰증권(STO), 블록체인의 경우를 포괄하는 전사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각 계열사의 전문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글로벌 가상화폐 수탁사 비트고와 합작법인 '비트고코리아'를 설립

해 수탁업 인허가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클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춰 국내 법인 설립과 현지 결제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올해 3월 SBI그룹 자회사 SBI VC트레이드를 통해 USDC가 공식 상장됐으며 SBI그룹은 올 6월 서클의 기업공개(IPO) 당시 서클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나 가상자산 기업들도 서클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면 사업 방향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없어… 도입 서두르지 말아야”

금융 전문가 최재원 서울대 교수

“달러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이미 많이 유통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옳을 것이 없습니다.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사실상 ‘제로(0)’입니다.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 전문가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경제학자인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수요도 없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억지로 만들면 국가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되게 설계한 가상 화폐(코인)를 뜻한다.

서울대 연구실에서 가진 최 교수와의 인터뷰는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등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이른바 ‘지니어스법(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nited States Stablecoins) Act·미 스테이블코인 혁신법)’에 서명한 것도 화제다. 그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은 한국금융학회·한국증권학회에 함께 13일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의 미래’란 이름의 특별 심포지엄을 서울대에서 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완전히 다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왜 수요가 없다.

“달러와 원화의 차이를 생각하면 간단하다. 단적으로 남미·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고 달러를 쓰기도 하지만, 원화를 쓸 리는 없지 않은가.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99%가 달러 기반이다. 유로·엔화조차도 거의 없다.”

—통화 주권 방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약간의 ‘공포 마케팅’ 성격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을 펴는 측은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국의 통화)를 잠식하려 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달러 패권은 글로벌한 사안이고 원화와는 무관하다. 결제 비용을 줄여준다는 주장도 수많은 ‘페이’가 있는 한국에선 와닿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돈을 버나.

“대부분을 예대 마진(예금·대출 간 금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가격을 고정시키기 위해 ‘준비금’이라는 형식으로 달러 및 단기 국채 같은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는다. 투자자에게 코인을

세계 2대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억지로 만들면 국가에 득 안돼
통화 주권 방어에 필요하다는 건
공포 마케팅이라 볼 수 있어

주고 현금을 (무이자)로 받은 다음 이 돈으로 채권을 사서 그 이자로 수익을 내는, 은행과 비슷한 모델이다.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커지면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흘러들어가 수 있는 데 좋은 일은 아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그 돈을 대출해줌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도록 돕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그런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코인런 등 따져볼 위험 많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어떻게 평가하나.

“실리콘밸리의 신기술로,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다. 상당수가 역외에서 유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정현성 기자

금융 전문가인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 교수는 “수요가 많아 이미 규모가 크게 불어나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용자가 거의 없다.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 돈세탁 같은 부작용을 막고 법인세를 제대로 걷겠다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2대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C(발행사 ‘서클’)의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약 320조원)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가 미국이 불어나는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최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국채 수요가 커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떤 위험이 있나.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실제로 금리

는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수요가 줄면 국채 이자는 상승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코인런(동시다발적 코인 인출) 가능성이다. 발행사가 채권을 급격하게 내다 팔아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타격이 올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하지 말아야 할까.

“디지털 통화가 혁신을 촉진할 가능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위험도 잘 따져 봐야 한다. 금융과 관련한 여러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 은행 위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김신영 기자

LG AI로 알츠하이머 ‘족집게 진단’ ... 정확도 92%로 높여

AI연구원, 美 잭슨랩과 공동연구 첫 성과 공개

LG AI연구원이 미국 잭슨랩과 손잡고 알츠하이머병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공동 연구를 시작한 지 1년4개월 만에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정확도를 92%로 끌어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려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잭슨랩은 유전질환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기관으로 직간접적으로 노벨상 수상자 26명을 배출했다.

◆생성형 AI를 난치병 진단에 활용

11일 AI업계에 따르면 LG AI연구원은 잭슨랩과 공동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한 성과 6편을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술대회(AAIC)와 국제머신러닝학회(ICML)에서 나눠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진단 능력을 크게 향상했다. 현미경과 망원경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전략을 사용했다. 기존에도 유전체 분석 등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환자의 뇌 세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단일세포 유전체 분석(snRNA-seq)’ 기술을 활용해 질병에 원인이 되는 세포를 구분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마치 현미경처럼 단일세포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진행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핵심 세포를 찾아낸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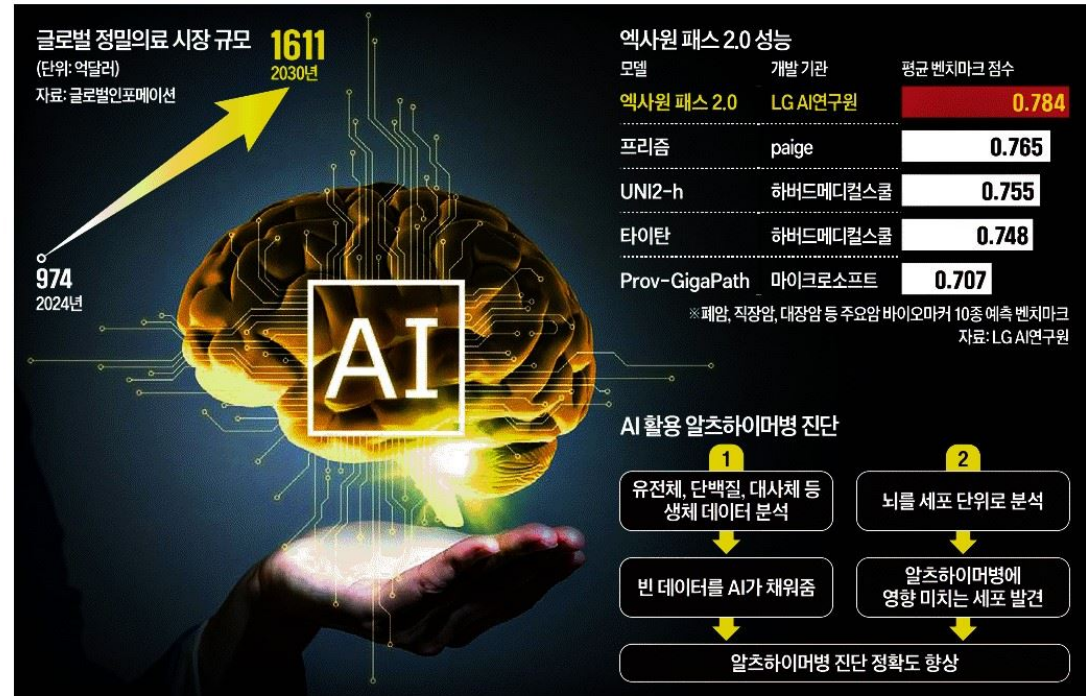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조망하는 일명 ‘망원경 분석’을 활용해 기존 의료 데이터 활용의 고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다. 의료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지만 환자마다 축적된 데이터 종류가 다르거나 일부가 누락되는 데이터 불완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LG AI연구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완전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모이라(MOIRA)’를 개발했다. 이 모델은 가용한 데이터를 조합한 뒤 누락된 항목은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정교하게 보완한다. 모이라의 알츠하이머병 진단 정확도는 92%에 달했다. 임상가가 진단할 때의 정확도는 60~70%다.

◆LG의 ‘AI바이오’ 첫 결실

최근 바이오산업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멀티모달 AI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결합하고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환자의 개별 생체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진단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MS가 지난 7월 공개한 AI 기반 진단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AI 진단 오케스트라(MAI-DxO)’는 의사의 진단율(20%)보다 네 배 이상 높은 정확도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이라’ 현미경으로 뇌 세포 정밀 분석 질병 원인인 핵심 세포 걸러내 “표적 후보군 검증 후 치료제 개발”

구광모 ‘AI바이오’ 본궤도 지난달 선보인 ‘엑사원 패스 2.0’ 유전자 검사 2주→1분으로 단축 항암 신약 등 벤처 투자도 가속 “빅테크 장악한 시장, 韓 발판 마련”

(85%)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지난해 의학용 생성 AI인 ‘메드 제미니’를 공개했다.

LG는 국내 기업 중 선구적으로 AI에 바이오산업을 접목하고 있다. 7월 초 선보인 ‘엑사원 패스 2.0’이 대표적이다. 기존 2주 이상 걸리는 유전자검사 소요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정밀의료 AI 모델이다. 백민경 서울대 교수팀, 황태현 미국 밴더빌트대 메디컬센터 교수팀과 공동으로 의료 AI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김기영 LG AI연구원 바이오랩 연구원은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발굴한 신약 개발 표적 후보군

은 내년 실험을 통해 검증한 뒤 향후 치료제 개발로 확장할 것”이라며 “잭슨랩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바이오 AI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LG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스트랜더테라퓨틱스, 아드박테라퓨틱스 등에 투자하는 등 바이오 분야 투자도 늘리고 있다. 누적 투자금은 5000만 달러를 웃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 신약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다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미래에 도전한다”며 고객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기술로 AI와 바이오를 꼽기도 했다. 이영애기자

“美서도 통하도록...최상위권 성능 K엑사원 만들것”

국가대표 AI 후보

<3> LG AI연구원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개발을 이끄는 LG AI연구원이 해외 선도 인공지능(AI) 모델을 넘어서는 기술 구현에 속도를 낸다. AI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통하는 AI를 개발해 국가대표 AI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김유철(사진)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11일 서울 강서구 LG AI연구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신력 있는 글로벌 벤치마크 기준 톱티어 수준의 성능을 보이는 AI 모델 출시에 도전하겠다”며 “해외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AI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LG AI연구원이 주관사인 LG 컨소시엄은 최근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중 하나로 선정됐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과 비교해 100% 이상의 성능을 내는 ‘K엑사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목표다. K엑사원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함께 각종 서비스를 출시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LG AI연구원은 이미 AI 원천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공개한 ‘엑사원 4.0’은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기관인 아티피셜 어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한국 모델 기준 1위, 글로벌 10위권을 기록했다. 엔트로피의 ‘클로드 4 오피스’, 엔비디아의 ‘라파 네모트

LG AI연구원 주도 ‘LG 컨소시엄’

핵심 과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신 프런티어 AI 모델 대비 100% 이상 성능의 ‘K-엑사원’ 개발

참여 기업·기관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뽀테크놀로지스

과제 목표

- 전문성·범용성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풀스택 AI 산업 생태계 조성
- B2C·B2B·B2G 등 분야별 서비스 선도 사례 창출

기여 계획

- 전 국민, 기업, 공공 분야 등 폭넓은 AI 활용 확산
- 국내 대학원생 대상 생성형 AI 연구 경험 기회 제공

자료: LG AI연구원

지난달 중순 공개한 ‘엑사원 4.0’
韓 1위·글로벌 10위권 성능 평가
바이오·금융 등 B2B 진출 모색
데이터 파운드리로 학습 가속도
“해외서 쓰고 싶게 만들어야 성공”



론’과 같은 64점을 거뒀다. 김 부문장은 “해외 최신 파운데이션 모델 대비 95%의 성능으로는 글로벌 10위권에도 들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모델 사이즈(파라미터)에 상관 없이 최상위권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개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추출 기술도 LG만의 강점이다. LG AI연구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전환하는데 ‘엑사원 데이터 파운드리’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고품질 데이터를 생산하는 AI 공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술로 전문가 60명이 3개월 동안 작업해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명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 부문장은 “독자 AI 개발을 위해 공동 구

매한 공공 데이터 등을 빠르게 학습 데이터로 바꾸고 고객 맞춤형으로 AI를 고도화할 때 데이터 파운드리 기술이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LG 컨소시엄은 미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김 부문장은 “바이오 분야에선 미국 제약사, 금융 분야에선 영국 런던증권거래소그룹과 AI 협력을 진행하는 등 기업간거래(B2B) 위주로 엑사원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엑사원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인데 이미 그 외 수십개의 언어도 학습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쓰고 싶은 AI 모델을 만드는 게 진정한 소버린 AI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웹OS, LG 미래 이끌 핵심”… 조주완, TV사업 수익개선 추진

산업 범용성 강조… “전세계 600개 이상 브랜드서 채택, 안정적 수익원 역할”

조주완 LG전자 CEO(최고경영자·사진)가 웹OS(webOS)를 LG전자의 미래를 이끌 ‘핵심요소’로 꼽았다. LG전자는 연평균 40%의 성장률을 기록 중인 웹OS를 중심으로 TV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조 CEO는 11일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에 “LG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요소인 웹OS는 소비자 and 상업용 시장 모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 40%와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OS는 LG전자 스마트TV의 운영체제로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이 LG전자의 스마트TV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2014

년부터 LG 스마트TV에 탑재됐다. 콘텐츠 내 광고와 서비스 등으로 수익을 낸다.

최근 출시된 ‘웹OS 허브 3.0’은 LG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디스플레이 제품에서 작동토록 설계됐다. 인도, 중동,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신흥시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웹OS를 채택하는 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조 CEO는 “스마트TV를 위해 개발된 웹OS는 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전세계 600개 이상 브랜드가 채택했다”며 “웹OS는 AI(인공지능) 콘텐츠 추천, 클라우드 게이밍, 스마트홈 연결, B2B(기업간 거래) 디스플레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웹OS의 핵심 콘텐츠인 FAST(광고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채널의 성장이 가파르다. 현재 33개국에서 4000개 이상 채널을 운영 중이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독점 콘텐츠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활용공간도 가정에서 상업시설, 호텔,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 중이다.

조 CEO는 “‘더 라이벌리스’(The Rivalries)와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공역량과 현지 고객참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스포츠 다큐멘터리 ‘더 라이벌리스’는 지난해 ‘웹비어워드’에서 최우수 스포츠영상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웹OS를 통해 TV사업의 수익성 반전을 꾀한다. LG전자의 TV사업 부문은 지난 2분기 19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 업체와 경쟁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LG전자는 웹OS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 CEO는 “LG전자는 ‘스마트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를 추진 중으로 질적 성장과 지속적인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구축을 포함한다”며 “중심에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웹OS가 있다”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

LG 업 가전, 유럽 업데이트 예고

**쌍큐업 누적 2000만 다운로드
현지 사용자 수요 반영 차별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가전 신기능을 무선 업데이트하는 '업(UP) 가전' 서비스의 유럽 업데이트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국과 북미에서 업 가전 서비스를 안착시킨 만큼 유럽 현지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업 가전 업데이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과 북미에서 서비스하는 업 가전 경험을 토대로 조만간 유럽의 정식 업데이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폴란드에 업 가전을 판매했으나 아직 정식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 1월 처음 선보인 업 가전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주요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

내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LG 쌍큐 업 기능은 누적 2000만회 이상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쌍큐 앱에 연결된 가전은

40% 증가했다.

2023년 업 가전 서비스를 시작한 북미에서는 초기 냉장고, 워시타워, 월오븐을 업 가전으로 선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업 가전 카테고리 워시콤보, 건조기, 식기세척기, 쿡탑, 창문형 에어컨, 에어로타워 등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올 상반기 기준 현지 가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했다.

해외에서는 '쌍큐 업 브랜드'로 서비스한다.

LG전자는 국가별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신규 기능이 다른 것에 주목한다.

미국의 경우 오븐에 적합한 '자동 시간 동기화' 기능이 대표적이다. 서머타임제에 맞게 시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간단한 기능이지만 현지 쌍큐 업 사용자의 57% 이상이 내려받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유럽 현지 서비스 인프라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 쌍큐 업의 첫 업데이트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연내 아시아와 중남미로의 확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한국경제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A28면 people

LG전자, 에티오피아 청년에 기술교육

졸업생 611명 취·창업률 100%

LG전자는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LG-KOICA(한국국제협력단) 희망직업훈련학교의 제9회 졸업식(사진)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LG-KOICA 희망직업훈련학교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LG가 KOICA, 에티오피아 정부 등과 협력해 2014년 설립한 기술교육기관이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000명 규모 부대를 한국에 파병했다. 이들은 195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도왔다.

LG전자는 매년 희망직업훈련학교 입학생을 선발해 전기전자·정보기술(IT) 분야 무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



다. 졸업생은 611명으로 취업·창업률은 100%다. 졸업생 모두가 LG전자 해외법인과 현지 기업체 등에서 근무 중이다. 2020년엔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직업훈련학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졸업생이자 6·25전쟁 참전용사 엘마 테게나와 손녀인 마헬렛 그르마이는 "기술 공부를 이어가 IT업계

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는 고객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세계 청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기자

베트남 “AI·반도체, 韓기업 적극 투자를”

최태원·정의선·구광모·신동빈
국민 만찬에 재계 총수 참석

베트남 추진 산업고도화 정책
韓기업 신성장 돌파구 기대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 정책이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1일 열린 양국 정상 간 공식 만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 것도 투자 확대 요청에 호응하는 차원이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베트남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협력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현지 연구개발(R&D) 인력을 추가로 늘리고 패키징 분야에도 투자를 늘릴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베트남은 기술 축적에 나설 수 있어 윈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 분야 협력도 더 활성화하기로 했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 방한 기념 만찬에 참석해 있다. 김호영 기자

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상징인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양국은 이미 AI 공동 연구와 인재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협력도 더 심화된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에서 스마트폰을, 호찌민에서는 TV와 가전제품을 생산 중이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부터 15억달러를 투자해 80만㎡ 규모의 ‘LG 하이퐁 캠퍼스’를 구축한 LG전자는 베트남 R&D 법인의 연구 인력을 지난해 1200명 수준에서 올해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베트남과의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특히 친환경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세제우대 정책 등 완성차 업체를 향한 지원을 강화 중이다. 안두원·김동은·우제윤 기자